

대동맥 판막 폐쇄 부전증이 동반된 심실중격 결손증의 수술성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정철현, 노준량

서울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83년 1월부터 1992년 12월까지 개심술로 교정술을 시행받았던 대동맥판막 폐쇄 부전증이 동반된 심실중격 결손증 환자 79례를 대상으로 수술전 환자들의 임상소견, 수술방법 및 슬후 경과, 추적 결과를 조사하여 연령에 따른 적절한 수술시기 및 수술방법을 규명코저 하였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10.2세 이었고 남자에서 2.6배 호발하였다. 술전 폐혈류량의 전신 혈류량에 대한 비 (Q_p/Q_s)는 1.45 ± 0.47 로 좌우단락의 양은 많지 않았으며, 수축기 폐동맥압 및 맥압은 각각 171.1 ± 5.0 mmHg, 42.8 ± 19.3 mmHg 이었다.

수술소견상 심실중격 결손은 type I이 57례, type II가 22례 이었으며 대동맥판막 폐쇄 부전을 유발한 대동맥 판막 병태는 우관동맥 판편탈출이 5례 (68.4%)로 가장 많았다.

수술은 51례(64.6%) 에서는 대동맥 판막교정없이 심실중격결손만 교정하였고, 대동맥 판막 재건술 및 판막치환술을 시행했던 예가 각각 22례(27.8%), 6례(7.6%) 있었다.

슬후 추적은 임상소견을 기초로 하여 심초음파 소견을 주로 하였는데 추적기간은 평균 21.4개월 이었으며 병원 사망은 없었고 1례에서 만기 사망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연령이 10세이하이고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정도가 경증일때는 심실중격결손증 교정만으로도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이 소실되거나 진행되지 않으며 그 이상의 연령에서는 심실중격결손 교정시 대동맥판막에 대한 수술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겠다는 결론을 얻었다.